

17세기말 향촌 사대부의 생활과 여행

- 海南尹氏 尹爾厚의 『支菴日記』를 중심으로 -

김 경 숙*

1. 머리말
2. 尹爾厚의 『支菴日記』와 여행 기록
 - 1) 윤이후와 『지암일기』
 - 2) 여행 기록 분석
3. 윤이후의 향촌 생활과 여행
 - 1) 성리학적 의례와 분산 수호
 - 2) 경제활동과 島嶼 경영
 - 3) 교유와 유배인 방문
 - 4) 휴양 및 유람
4. 맺음말

1.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여행은 관광, 유람, 휴양 등 주로 휴식과 여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집을 떠나 객지를 다녀오는 여행의 의미에는 어떤 목적을 위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휴식과 여가 여행 외에도 업무를 위한 출장,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방문, 학업을 위한 여행, 물품을 사러가는 여행 등 그 범위와 종류는 넓고 다양하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교통과 숙박이 오늘날처럼 편리하지 않았지만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여행에 직면하고 경험하였다. 그들 중 상당부분은 遊覽記, 遊山記, 使行錄 등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별한 기록이 아닌

*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부교수.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경험한 여행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는 많지 않다.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기록한 일기는 전통시대 여행의 다양한 측면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¹⁾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후반 尹爾厚(1636~1699)의 『支菴日記』는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²⁾ 윤이후는 1692년(숙종 18) 함평현감을 마지막으로 靈巖 玉泉 八嗎에 귀향하여 1699년(숙종 25)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촌에서 생활하였다. 『지암일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³⁾ 향촌 사족의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봉당정치기의 정치적 소용돌이, 남쪽 해안 고을인 해남의 지역적 특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엮히면서 그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삶과 활동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곧 여행 기록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암일기』의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그의 향촌 생활을 미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향촌 생활의 실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윤이후는 연로한 나이에 지방관에서 은퇴한 평범한 사대부였기 때문에 매우 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행 기록을 통해 그의 향촌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尹爾厚의 『支菴日記』와 여행 기록

1) 윤이후와 『지암일기』

尹爾厚는 해남에 세거한 해남윤씨 尹善道(1587~1671)의 손자로 자가 載卿, 호는 支庵이다. 부친은 禮美(1619~1669), 生父는 義美(1612~1636)이며, 斗緒

1) 이와 관련하여 정치영, 2008 「日記를 이용한 조선중기 양반관료의 여행 연구」 『역사민속학』 26이 주목된다.

2) 『지암일기』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정운섭, 2012 「16·17세기 海南尹氏의 花山 竹島 海堰田 개간: 尹爾厚의 『支菴日記』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6이 있다.

3) 윤두서는 묘지명에서 부친의 귀향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함평에서 돌아와 사환에 뜻을 두지 않고 해남 죽도에 別區를 택하여 몇간 집을 짓고 말년을 보낼 계획을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한 줄에 불과한 8년 동안의 행적이 『지암일기』에서는 3책으로 상세하게 드러난다.

이 집중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고 단속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부모를 일찍 여읜 성장 과정과 조선후기 봉당 정치 속에서 조부 윤선도의 부침이 심한 정치 역정 및 유배 생활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는 만년에 짧은 관직 생활을 경험한다. 1679년(숙종 5, 44세) 생원시에 합격하고 1689년(숙종 15) 증광시에 급제하여 54세의 늦은 나이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 후 성균관 전적, 병조 정랑, 선혜청 낭청, 사간원 정언 등을 거쳐 1691년(숙종 17) 외직으로 나가 함평 현감을 1년 남짓 역임하다가 이듬해 3월 영암 옥천으로 낙향하였다. 이후로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말년을 향촌에서 생활하다가 1699년(숙종 25) 64세로 세상을 떠났다.⁷⁾

그는 말년의 향촌 생활 동안 매일 일기를 기록하여 『支菴日記』 세 권을 남겼는데 현재까지 후손가에 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가 함평 현감에 재직 중이던 1692년 1월 1일부터 사망 직전인 1699년 9월 9일까지 총 7년 8개월 9일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다. 각 권별로 일기의 기록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암일기』의 각 권별 기록 현황

권수	나이	수록 연도		수록 기간
1권	57세	壬申	1692년(숙종 18) 1월 1일부터	3년
	58세	癸酉	1693년(숙종 19)	
	59세	甲戌	1694년(숙종 20) 12월 29일까지	
2권	60세	乙亥	1695년(숙종 21) 1월 1일부터	2년
	61세	丙子	1696년(숙종 22) 12월 30일까지	
3권	62세	丁丑	1697년(숙종 23) 1월 1일부터	2년 8개월 9일
	63세	戊寅	1698년(숙종 24)	
	64세	己卯	1699년(숙종 25) 9월 9일까지	
합 계				7년 8개월 9일

7) 윤이후는 고향에 돌아온 이듬해인 1693년(숙종 19) 3월 持平에 임명되었다(『숙종실록』 19년 3월 5일 기유조). 그러나 직전인 2월 27일 養母 驪州李氏가 세상을 떠나 상중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다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일기에서 그를 ‘持平’이라 칭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기 내용은 윤이후 자신의 활동을 중심으로 매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이다. 奉祭祀, 接賓客 및 交遊, 家事 운영 등 조선시대 향촌에 거주하는 일반 사대부의 일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함께 『지암일기』의 특징적인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연해안의 간척지 개발과 竹島 경영, 서울 자녀들과의 왕래, 인근 지역 유배인들과의 교류 등은 해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함평 현감 재임 시의 업무로 인하여 의금부 심문을 받는 기사는 전직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갑술환국 당시 해남 인근지역으로 유배온 남인계 인물들을 지원하고, 아들 宗緒가 갑술환국에 연루되어 옥사한 기록은 조선후기 봉당 정치기에 해남윤씨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일기 곳곳에 저술과 시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1권의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 지은 시를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밝히면서 필사하였고, 3권의 1698년 6월 26일조에는 ‘逸民歌’ 62구 전문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함평 현감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여 초야에 묻혀 사는 감회를 읊은 歌辭로 가사문학의 대가였던 할아버지 윤선도의 가통을 계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⁸⁾ 3권의 1698년 12월 말미에는 풍수가의 山論을 수록하여 전문적인 풍수지리 분야의 담론을 접해볼 수 있다. 제목은 ‘孫生所著山論’으로 풍수가 孫必雄이 윤이후와 함께 白蓮洞, 聞簾洞, 白也只 등 해남윤씨가 선산을 돌아보고 지형적 특성과 길흉을 논한 글이다.

2) 여행 기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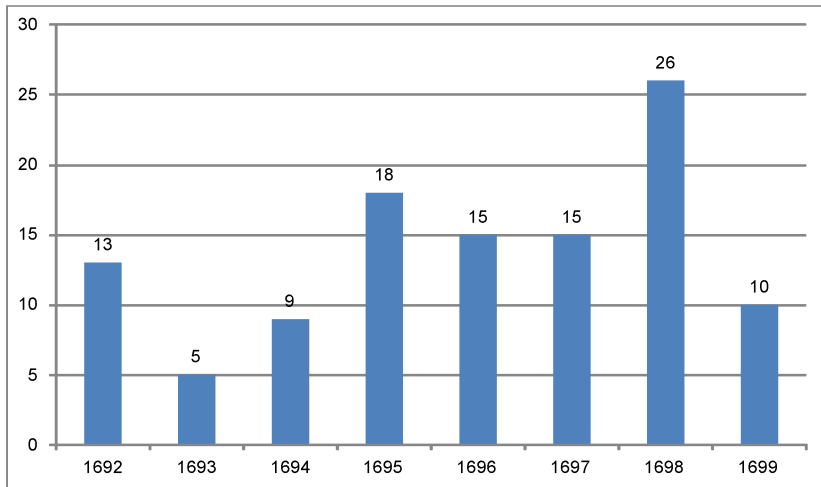
여행(旅行)의 사전적 의미는 “볼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이다.⁹⁾ 여기에는 관광이나 유람뿐만 아니라 볼일 즉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나 객지를 다녀오기 위하여 길에 오르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이

8) 일민가는 국문학 분야에서 일찍부터 주목하여 연구 성과들을 축적하였다. 구수영, 1971 「윤이후의 일민가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7 ; 김명준, 2005 「일민가의 의식 지향과 시가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 조연숙, 2008 「일민가 연구: 작가의식과 공간의식을 중심으로」 『한국고시기문화연구』 22 ; 양희찬, 2010 「일민가의 내적 짜기 방법」 『어문연구』 64.

9) 이희승 편저, 1986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민중서림.

에 따르면 객지에서 숙박하지 않고 출발한 그날 바로 돌아오는 당일 여행도 포함해야 하지만 당일 여행은 외출과의 구분이 어렵고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①여행 목적, ②외지 행차, ③객지 숙박 등 세 항목을 여행 요건으로 적용하여, 당일 귀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외지 즉 그의 거주지인 팔마를 벗어난 곳에서 1박 이상을 숙박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같은 조건을 근거로 일기에서 윤이후의 여행 기록을 추출한 결과, 귀향한 1692년(숙종 18) 3월 7일부터 일기가 끝나는 1699년(숙종 25) 9월 9일까지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여행 횟수는 111회, 전체 여행일은 755일에 달하였다. 해마다 14.8회의 여행을 떠나 100일 동안 여행길에 있었던 셈이다. 은퇴한 노년기의 정적인 삶의 이미지보다는 향촌을 무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연도별로 나누어 시기적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윤이후 여행의 연도별 추이

표를 보면, 윤이후의 여행은 귀향 초반기보다는 중후반기에 활성화된 양상을 보인다. 귀향 첫해에 다소 활발한 모습은 변화한 환경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듬해부터는 여행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693년과 1694년에는 한달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여행 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1695년 18건, 1696년과 1697년은 각각 15건에 달하고 후반기인 1698년에 이르면 26건으로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여행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의 네 측면이 주목된다. 첫째, 의례 및 분산수호와 관련한 여행이다. 여기에는 족친과 지인들의 상장례 및 제사, 그리고 성묘, 山役, 또는 새로운 묘자리를 택산하거나 풍수를 살피기 위한 墳山 행차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家事 및 경제 활동과 관련한 여행으로 특히 堤堰 및 간척지 운영에 집중되고 있다. 셋째는 휴양 및 유람과 관련한 여행이다. 족친 또는 지인들의 연회에 참석하고, 사찰이나 명승지 등을 찾아 유람하고, 혼자서 여유 시간을 즐기고 소일하기 위한 휴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지인 방문과 관련한 여행이다. 특히 유배인 행차 및 유배지 방문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갑술환국이라는 시기적 특성 및 해남의 지리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다.

이들 4가지 분류에 의거하여 윤이후의 여행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여행 목적과 시기별 특성

연도 목적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총합계
의례, 분산	5	1	4	4	5	6	9	4	38
휴양, 유람	4	1		2	5	1	11	4	28
가사, 경제	4	0	3	7	3	3	1		21
지인 방문		1	2	5	2	3	5	2	20
기타		2				2			4
총합계	13	5	9	18	15	15	26	10	111

표를 보면, 의례·분산 관련 여행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특히 후반기로 가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상제례 및 분산 수호 활동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삶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윤이후의 여행에도 그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삶에서 성리학적 의례 및 분산 수호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귀향 초반기에 해당하는 1692~1694년 사이에는 가사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여행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 휴양·유람은 3년 동안 5건으로 귀향 첫 해에 집중되고 이후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지인 방문 또한 3년 동안 3건에 불과하다. 중반기에 해당하는 1695~1697년 사이에는 초반기에 비하여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가사·경제 활동, 휴양·유람, 지인 방문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활성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1695년에는 가사·경제 활동을 위한 여행이 전 기간을 통틀어 정점에 올라 상제례·분산수호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휴양·유람은 2건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에는 가사 및 경제 활동에 전념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후반기인 1698~1699년 사이에는 가사·경제 활동 관련 여행은 1건에 불과한 반면 휴양·유람 및 지인 방문에 집중되었다. 귀향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가정 운영을 추진하여 중반기에 정점을 찍으면서 일단락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는 가정 운영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휴양·유람 및 지인 방문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 3〉 여행지와 여행 목적

지역 목적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총합계
	강진	영암	영암 강진	해남	해남 강진	영광	장흥 강진 영암	진도	경상도	서울	
의례, 분산	7			24	6					1	38
휴양, 유람	7	2		19							28
가사, 경제				19	2						21
지인 방문	8	3	1	4	1	1	1	1			20
기타		1		1					1	1	4
총합계	22	6	1	67	9	1	1	1	1	2	111

여행지는 8년 동안 총 111건의 여행 중에서 거주지인 영암과 인접 지역인 해남, 강진 등 3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 여행이 105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들 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광, 장흥, 진도, 경상도, 서울 여행은 8년 동안 6

건에 불과하였다. 여행 범위는 향촌에서의 활동 범위를 반영한다고 볼 때, 그의 활동 범위는 근거지 및 인접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여행 목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의례·분산수호, 휴양·유람이 해남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강진 등에 분포하는 것과 달리 가사·경제 활동은 전적으로 해남에 국한된 모습을 보인다. 해남윤씨 종손가가 해남 연동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남윤씨가 지손인 윤이후의 생활 기반과 활동 무대 또한 해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달리 지인 방문은 강진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윤이후가 방문 여행길에 오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이 강진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그 지인들이 어떤 인물들이고 어떤 특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표 4〉 여행 일정과 여행 목적

목적 \ 일정	2일	3~5일	6~10일	11~20일	21~30일	31일 이상	총합계
의례, 분산	13	14	8	2		1	38
휴양, 유람	9	11	5	2		1	28
가사, 경제	1	5	8	5	2		21
지인 방문	9	8	3				20
기타	1	1			1	1	4
총합계	33	39	24	9	3	3	111

여행 일정은 (1박) 2일 여행이 33건으로 압도적으로 높고, 5일 이하의 단기 여행이 72건으로 전체 65%에 육박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여행지는 영암·해남·강진의 인접 지역 근거리 여행이 대부분이다. 이들 인접 지역 여행은 登程日이 같 때 1일, 올 때 1일로 2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행지에서 체류 기간은 1~3일에 불과한 단기 여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행 목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례·분산수호, 휴양·유람, 지인 방문 등을 위한 여행은 5일 이하의 단기 여행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사 및 경제 활동은 단기보다는 6~20일의 중장기 여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1일 이

상의 장기 여행도 다른 여행들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7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 및 경제 활동이 증장기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제언 및 간척지 개발과 관련되어 여행지에서 많은 체류 기간이 필요한 데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3. 윤이후의 향촌 생활과 여행

1) 성리학적 의례와 분산 수호

윤이후의 여행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여행은 의례·분산수호 관련 여행으로 전체 111건 가운데 38건에 달하는데, 특히 분산 수호 및 택산 관련 여행이 두드러진다. 이 집안의 분산은 해남에 위치한 赤梁院¹⁰⁾ 및 聞簾洞,¹¹⁾ 강진에 위치한 幹頭里¹²⁾ 등이 일기에서 확인된다. 해남의 적량원 산소는 그의 養父 윤예미, 문소동 산소는 조부 윤선도의 분묘가 있는 곳이고, 강진의 간두리 산소는 그의 생부 윤의미, 친형 윤이구 및 5대조 윤구 분묘가 있는 곳이었다. 그는 이들 산소 성묘를 위하여 빈번하게 여행길에 올랐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분산 수호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였듯이 그 역시 분묘 단장 및 분산 수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였다. 1692년 귀향 직후부터 분산 일을 적극 추진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1592년 4월 19일 무술 맑음. 오후에 적량원 산소에 나가서 石役을 살폈다. 수년 전 서울에서 標石, 床石, 童子·望柱 각 1쌍을 매득하여 배편으로 부쳐 보냈는데, 내가 벼슬살이로 서울에 있어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였다. 내가 이미 파직되어 향촌에 있으니 이때에 맞춰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 달 12일부터 역사를 시작하였다. 石工은 徐必正이다. 죽도 堰役, 팔마 營造, 산소 석물 등 3大役을 일시에 거행하는데 농사철을 당해 役力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매우 근심스럽다.¹³⁾

10) 해남 해남읍 서쪽 23리에 위치로 오늘날 원호리, 교동 근방에 해당한다.

11) 해남 현산면 구시리에 위치한다.

12) 강진 백도면 간두리에 해당한다.

그는 서울에서 관직 생활 중에 이미 부친 산소의 석물을 마련해 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수 년 동안 설치하지 못하다가 귀향하자 곧바로 숙원 사업이었던 석물 공사를 추진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팔마의 가옥 건축 및 죽도의 제언 보수 공사도 일시에 거행하였기 때문에 이들 3대 역사로 영암 팔마 → 해남 죽도 → 해남 적량 산소를 오가며 분주한 날을 보내야 했다.

석물 공사는 4월 12일에 시작하여 그달 말까지 표석 및 상석을 다듬는 작업[細釘]을 마치고 5월부터는 연마 작업[磨正]에 들어갔다.¹⁴⁾ 연마 작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못하고 가을까지 이어져 8월 9일에 마치고, 자신이 직접 표석에 大字 9글자 및 연월 15글자를 썼다. 그 후 18일에 석물을 세우고 제사를 거행함으로써 적량산소의 석물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작업 초반에 표석과 상석을 다듬는 작업을 살피기 위해 4월 19일 산소행을 하였고(2박 3일), 이후에도 연마 작업을 시작할 때인 4월 30일(3박 4일), 연마 작업이 끝나고 표석에 글자를 새기는 작업을 할 때인 8월 9일(2박 3일) 등 작업 공정이 전환될 때마다 산소에 직접 다녀왔고, 8월 18일에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마지막 산소행을 하였다(2박 3일). 이처럼 석물 공사하는 4개월 동안 그는 총 4차례의 여행길에 올랐고, 갈 때마다 보통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와 함께 의례 및 분산수호에서 주목되는 여행은 宗兄 尹爾錫(1626~1694)의 사망이다. 윤이석은 윤선도 → 인미 → 이석으로 이어지는 해남윤씨가의 종손으로 無後하여 사촌 동생인 윤이후의 네째아들 두서를 입후하여 가계를 계승하였다. 종손가는 해남 연동에 있었으나 당시 윤이석은 계후자 두서와 함께 도성의 會洞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윤이후는 종손의 가장 가까운 從弟이자 차종손의 생부로서 비어있는 해남 연동의 종가를 보살피는 입장이었다.

13)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4월 19일 무술.

14) 5월 1일에는 연마제로 사용할 모래를 운반해 왔는데, 애초에 석공이 간두리의 모래가 곱고 강하다고 추천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부득이 가까운 燕島 모래를 실어왔다. 다음날부터 연마 작업을 시작하여 2일에는 연도인 20명, 3일에는 非里人 27명이 와서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1694년 1월 24일 윤이석이 서울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상례 및 擇山과 관련하여 1694년부터 1699년까지 5년 동안 11차례의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지는 상장례를 위해서는 가깝게는 해남 연동에서 멀리는 도성까지 여행길에 올랐고, 택산을 위해서는 해남, 강진 일대의 산소 각처를 地師와 함께 수년 동안 찾아다녔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宗兄 尹爾錫 喪葬禮 관련 여행

날짜	여정	여행지	내용
1694.2.4~7	3박4일	해남 연동	종형 윤이석이 사망하여 연동에 設席
1694.7.19~20	1박2일	해남 연동, 백도 논정, 사정	종형 遷葬處 看山하고 연동 어초은묘 아래로 정함
1694.11.23~24	1박2일	해남 연동, 문소동 산소	천장처를 문소에 점산하였으나 바위와 水氣로 상사 안 됨
1695.1.23~24	1박2일	해남 연동	小祥, 연동에 죽인들이 솟
1695.5.24~6.2	7박8일	해남, 강진 산소등처	천장처 간산을 위해 지사 설수증과 여러 산소를 돌아봄
1695.7.12~13	1박2일	강진 산소등처	천장처를 위하여 윤동미, 지사 서육과 강진 백도면 일대를 돌아봄
1696.4.25~6.25	59박60일	서울	종형 大祥으로 서울행. 죽친 방문 및 모임
1698.11.25~26	1박2일	강진 간두산소	두서 부탁으로 지사 손필웅과 종형 장지를 간산
1698.2.19~23	4박5일	해남 산소제처	지사 신속과 求山行
1699.1.20~21	1박2일	강진 운주동	지사 손필웅과 운주동에 감
1699.10.3~14	11박12일	해남, 강진일대	지사 손필웅과 求山之行

<표 5>를 보면, 1월 24일 서울에서 사망한 종형 소식이 영암 팔마까지 내려온 것은 10일 만인 2월 4일이었다. 부음을 듣자 그는 곧바로 땅에 자리를 펴고 통곡한 다음 해남 연동 종가로 가서 죽친들과 함께 빈소를 설치하고 통곡하였다. 해남에서 도성까지는 한달음에 달려가기에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해남 종가에 별도로 빈소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죽친들과 지인들의 조문을 받기위한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동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들을 접대하다가 成服한 후에 팔마로 돌아갔다. 1년 후에는 소상을 맞이하여 죽친들과 다시 연동에 모여 곡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대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2개월 일정의 上京 여행길에 올랐다.

한편 그는 윤이석의 천장지를 택산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地師를 동반하고 해남, 강진의 선산 및 주변 산을 돌아다녔다. 서울에서 사망한 윤이석의 초장지는 과천 東月峙下였으나 고향인 해남으로의 이장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윤이후의 간산 여행이 1694년 7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천에 입장한 직후부터 이장 논의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천장지의 택산 과정에서 형수인 윤이석 처와 의견이 엇갈려 지연되는 상황에 처한다. 그는 연동 윤희정묘 계체 아래를 천장지로 추천하였는데 윤이석 처는 문소동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결국 천장지는 문소동으로 결정되고 이장을 추진하였으나, 묘를 파는 과정에서 바위가 많이 나오고 水氣까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다시 연동으로 가서 윤희정 묘 아래를 파보았으나 설상가상으로 썩 좋은 자리가 아님이 밝혀져 그마저도 사용하지 못하였다.¹⁵⁾ 결국 천장지는 해를 넘기고 다음해에도 봄가을로 간산 여행에 나섰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간산 여행은 해마다 이어져서 1699년까지도 계속되었으나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였다.

천장은 그로부터 200년의 세월이 흐른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8대손 尹觀夏(1841~1926)에 의하여 성사될 수 있었다. 윤관하는 1890년 봄에 강진 德井洞 尹耕 墓 32보 아래 지점으로 윤이석 묘의 천장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죽인들과 분쟁이 일어나 끝내 덕정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893년에 해남 松旨面 舊銀巢安局으로 천장할 수 있었다. 윤이석은 사망한지 200년 만에 고향 땅에 安居할 수 있었다.¹⁶⁾

2) 경제활동과 島嶼 경영

의례·분산수호와 함께 윤이후의 주요 여행은 家事 및 경제활동으로 전체 111건 가운데 21건에 달한다. 여행지는 모두 해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행 일정은 단기 여행보다는 중장기 여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행의 주요 내용이 제언 및 간척지 개발 등 경제 활동에 집중된 결과이다.

해남윤씨가의 도서 및 해연전 개발은 이미 16세기 이전부터 활발하게 추진하

15)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11월 23일 정해 및 24일 무자.

16) 김경숙, 2011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遠地墳山과 遷葬」 『사학연구』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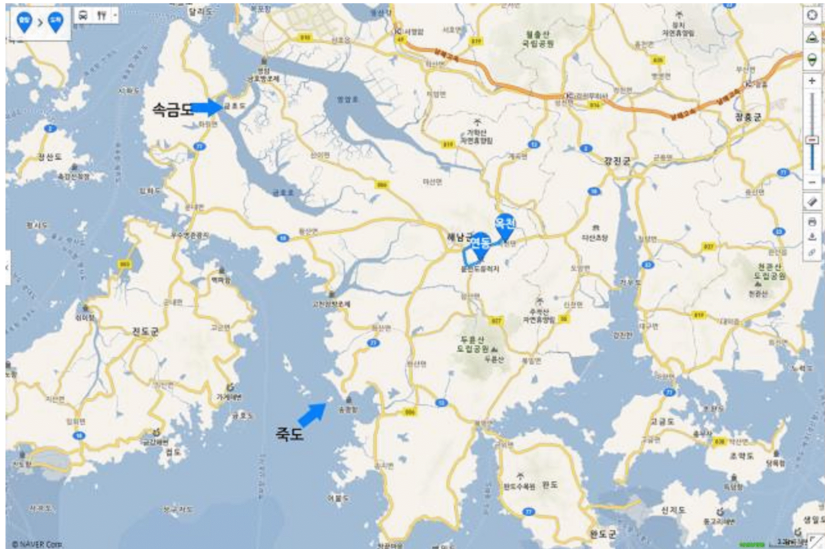
였고,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력을 구축하였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¹⁷⁾ 윤이후 또한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여 제언 및 간척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 가정 운영 관련 여행

번호	날짜	여정	여행지	내용
1	1692.3.19~27	9	해남 죽도	제언 보수
2	1692.4.6~11	6	해남 죽도	제언 석축
3	1692.4.13~14	2	해남 죽도	제언 보수
4	1692.10.8~27	20	해남 죽도	제언 석축, 바위 뚫어 수문 공사, 석수 유고로 정지
5	1694.3.4~6	3	해남 속금도	제언을 살피고 장제도 좌우보다는 舊址를 防禦하기로 결정
6	1694.3.19~4.8	19	해남 속금도	제언 방축 役事, 중간에 가지도, 용당리 유람
7	1694.4.15~30	26	해남 속금도	제언 역사 完畢, 30일, 역군 3,187명, 조 22석, 쌀 3석
8	1695.1.27~2.4	8	해남 부소도, 죽도	부소도에서 나무 10주 斫取하여 죽도로 運入
9	1695.5.7~12	6	해남 봉대암, 속금도	도장사 유람, 都津에 간척지 정보듣고 현장 답사, 속금도 제언에 拒新을 배로 실어보내고 堰役을 살핌
10	1695.9.4~6	3	해남 죽도	亭舍 開基, 그 전에는 舍音奴 每仁家에서 留宿
11	1695.10.3~12	10	해남 죽도, 대둔사	정사 건축, 대둔사 유람(7~8)
12	1695.10.16~29	14	해남 죽도, 백포	정사 건축, 용포모라구미 看山(25~26)
13	1695.11.25~29	5	해남 죽도	草廬 미진한 작업, 온돌 작업
14	1695.12.13~21	9	해남 죽도	새집 벽칠 작업
15	1696.1.4~8	5	해남 죽도, 문소동, 연동, 강진 간두	새집 완성, 간두·문소동 성묘, 연동 조문
16	1696.2.5~13	14	해남 죽도	새집에 다녀감
17	1696.3.13~22	10	해남 죽도	새집에 화초를 심음
18	1697.3.16~윤3.9	23	해남 죽도	해창전 두모동 제언 退築 役事
19	1697.7.25~8.7	12	해남 죽도	어진 설치
20	1697.9.20~24	5	해남 죽도	防築基를 정하기 위하여 諸客들과 현장답사
21	1698.9.21~29	9	해남 속금도, 죽도, 백포, 간두	속금도 제언 加築, 백포 별묘 제사 및 간두 굴 정공 묘제

17) 해남윤씨가의 간척지 개발 및 도서 경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승준, 1990 「16~18세기 해남윤씨가문의 토지·노비소유실태와 경영: 해남윤씨가 고문서를 중심으로」 『청계사학』 6 : 정윤섭, 2012 『해남윤씨가의 간척과 도서경영』, 민속원 참조.

위의 표를 보면, 21건의 여행이 모두 제언 및 도서 경영과 관련되며, 지역적으로는 죽도와 속금도에 집중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귀향 직후인 1692년에는 죽도 제언 보수 공사, 1695년 하반기에는 죽도 精舍 건축 공사로 왕래가 빈번하였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1694년에는 속금도의 제언 축조 공사에 전념하였다.



〈그림 3〉 해남 죽도와 속금도의 위치¹⁸⁾

(1) 죽도

죽도는 해남 화산반도 앞에 위치한 섬으로 일찍부터 해남윤씨 종손가에서 절수받아 해언전을 간척하고 전장을 경영한 지역이다.¹⁹⁾ 윤이후 또한 종손가와는 별도의 전장을 죽도에 소유하였음을 『지암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가 귀향 직후 죽도행을 하면서 ‘별업’이라 일컫고, 솜푼 奴 每仁家에서 유숙하는 상황은 이를 뒷받침한다.²⁰⁾ “전부택 제언 마을 사람 5명이 왔다[典簿宅堰里人五名

18)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참조. 이하 지도 동일.

19) 1647년(인조 25) 윤성산택(尹善道宅號)에서 戶奴 春立의 이름으로 해남현에서 花山二道 庵仇之 竹道 앞바다의 무주지를 절수받은 立案을 비롯하여 1670~1680년대에 죽도 지역에서 입안받거나 매매한 문서들이 상당수 전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정윤섭, 앞의 책, 94-102면 참조).

來]”는 기록 또한 윤이석가의 제언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윤이후는 은퇴할 당시 죽도에 마름노를 두고 전장을 관리하는 별업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윤이후는 귀향 직후 죽도의 제언을 補修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1692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죽도행을 하였다. 첫 번째는 토역 공사로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귀향한지 불과 10여일 만인 3월 19일에 죽도로 나가 9일 동안 머물면서 공사를 추진하였다. 마지막 날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언의 토역을 다 끝냈다. 전후로 투입된 役軍이 장차 800명에 달하여 겨우 완성하였다. 제언 안팎의 토역은 장차 다음달 10일 사이에 할 것이다. 또 石築을 하는데 그 工力이 필시 곱절이 될 것이니 어떻게 酬應할지 염려스럽다.²¹⁾

이에 의하면, 1단계로 제언의 토역 공사를 완성하였고,²²⁾ 2단계는 제언 안과 밖의 토역 공사, 3단계는 石築 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다음달 4월 6일 다시 죽도를 찾았다. 인용문에 의하면 2단계 작업인 제언 안팎의 토역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3단계 석축 공사가 추진되었다.

석축 공사는 官力을 빌리지 않고 그 스스로 역군을 구해서 7~14일까지 진행되었다.²³⁾ 중간에 팔마 가옥의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잠시 팔마로 돌아갔으나 곧바로 돌아와 석축한 위에 모래를 덮는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석축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흙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모래를 덮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작업 과

20)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3월 19일 “十九日戊辰陽 以修補堤堰 出來竹島別業 留宿于舍音奴每仁家.”

21)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3월 27일.

22) 1단계 토역 공사에는 官力을 동원하여 800명에 가까운 役軍이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윤섭, 앞의 논문 참조.

23) 그 과정에서 7일에는 대둔사 승려 240명, 8일에는 미황사 승려 140명, 9일에는 백야지·두모포·양하동·전거론 등인 180명이 와서 작업하는 등 해남윤씨가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둔사와 미황사 승려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

정에서 役酒(일꾼들에게 제공할 술)가 바닥나서 겨우 반 정도 밖에 못하고 중지해야 했다.²⁴⁾

그해 가을 그는 네 번째 죽도행에 올랐다. 봄에 보수한 석축 공사 당시 모래를 반쯤 덮다 중지했는데, 여름철에 바닷물이 들이쳐서 석축이 퇴락하고 오히려 모래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가을 추수하는 틈에 맞추어 모래 덮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10월 8일 죽도를 찾았던 것이다.²⁵⁾ 그는 20일 동안 죽도에 머물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水門을 石材로 제작하는 작업까지 벌였다. 원래 수문은 목재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바닷물 속에서 썩기 마련이라 해마다 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石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²⁶⁾

귀향 직후부터 시작한 죽도 제언 보수 공사는 한 해 내내 계속된 끝에 연말에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²⁷⁾ 그 과정에서 그는 네 차례나 죽도에 들어가 작업이 진행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현장에 체류하였다. 그의 죽도 여행 일정이 2~3일의 단기여행이 아닌 평균 10일 내외, 길게는 20여일의 중장기 특성을 보이는 주요 요인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귀향 첫해의 죽도 제언 보수 작업은 수차례에 걸쳐 방대한 물력을 동원하여 추진함으로써 일단락되어 이후 몇 년 동안 효과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693년 이후로는 죽도 제언을 보수하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이후의 죽도 여행도 뜸해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3년 후인 1695년 가을에 다시 집중적으로 죽도를 찾게 된다.

1695년의 죽도 여행은 精舍 건축 때문이었다. 그의 묘지명에 “함평에서 돌아와 더욱 사환에 뜻을 두지 않고 해남 죽도에 別區를 택하여 몇 칸 집을 짓고 終老할 계획을 하였다.”²⁸⁾ 기록이 이때의 정사 건축을 가리킨다. 공사는 9월부터 시작하였으나 흉년으로 1개월 만에 정사를 포기하고 초당 건축으로 방향을 전환

24)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4월 14일 계사.

25)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10월 8일 계미.

26)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10월 15일 경인.

27)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12월 27일 경자.

28) 윤두서, 「묘지명」 “自咸平歸 尤不以仕宦爲意 占別區於海南之竹島 構數間屋 爲終老計.”

하게 된다. 초당은 정사에 비하여 소규모 공사로 소용되는 物力의 부담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사 터 서쪽에 초당을 지어 임시로 거처하다가 추후에 정사가 완성되면 수호노의 집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²⁹⁾ 건물 배치는 남향 3칸으로 구성하고 서쪽머리에 1칸을 橫着하였다. 동쪽 1칸 반은 그가 거처할 방, 나머지 1칸 반은 부엌을 배치하고, 횡착한 1칸은 사환이 거처하는 방[上直房]이었다.³⁰⁾ 동쪽 창문 밖에는 반간 정도를 돌출시켜 대나무를 엮어 앉을 수 있는 상을 설치하였다.³¹⁾

초당 건축은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10월 3일 죽도에 도착한 이후 공사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죽도에 머물렀다. 10월 12일 팔마에 잠시 다니러 갔으나 4일 만에 다시 돌아와 29일까지 14일 동안 죽도에 머물면서 공사에 집중하였다. 한 달 동안의 집중적인 작업 결과 초당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후 11월 하순에 그는 다시 죽도를 찾아 온돌을 놓고 방바닥에 흙을 칠하고,³²⁾ 12월에는 벽에 모래를 바르고 도배를 하였다.³³⁾ 이로써 초당 건축은 10월에 시작하여 12월말까지 총 3개월이 걸려 완성되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그는 다시 초당을 찾아 조경 작업까지 하였다. 배나무, 감나무를 접붙이고,³⁴⁾ 大菴寺洞에서 동백, 비자, 단풍, 굴갈목, 가시목, 생단목 등을 채취하여 심고, 지인에게서 동백을 얻어다가 심는 등 조경 작업에도 신경 썼다.³⁵⁾ 이후로 그는 수시로 죽도 초당을 왕래하면서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고 지인들과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³⁶⁾

29)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5년 10월 4일 계사.

30)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5년 10월 6일 을미.

31)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5년 10월 22일 신해.

32)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5년 11월 25일 계미~28일 병술.

33)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5년 12월 14일 임인 및 16일 갑진.

34)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6년 3월 14일 경오 및 15일 신미.

35)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6년 3월 16일 임신.

36) 윤이후는 초당을 죽도정사라 이름하고 자신이 읊은 시를 보여주고 경향 지인들로부터 화답시를 받아 『竹島唱酬錄』을 엮었다. 이는 현재 해남윤씨가의 가족사를 정리한 『당악문헌』에 「竹島詩帖」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2) 속금도³⁷⁾

束金島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는 해남 화원방에 속한 섬이다. 옥천 팔마에서 40~50km 즉 100여리 정도 떨어진 곳이다. 윤이후는 1694년 봄부터 1695년 봄까지 집중적으로 속금도 여행길에 올랐다. 이 시기는 죽도 제언 보수 작업이 완성되고 초당 건축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죽도 여행이 뜸해졌던 사이이다. 그 기간 동안 윤이후의 관심이 속금도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약 1년 동안 그는 속금도에 총 4차례 왕래하였는데, 모두 제언 防築과 간척지 개발을 위한 여행이었다.

1694년 3월의 첫 번째 여행에서 그는 현장을 답사하고 제언을 방축할 위치를 탐색하였다. 그곳에는 원래 제언이 있었으나 황폐화되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는 새로 쌓는 제언의 위치를 최대한 바다 쪽으로 몰려서 쌓고 싶어 하였으나 축조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옛 자리에 다시 제언을 쌓기로 결정하였다.³⁸⁾

축조 방식이 결정되자 작업은 달을 넘기지 않고 22일부터 곧바로 시작되어 4월 28일 완공하였다. 비 때문에 중단된 날짜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한 날은 30일이었고, 役軍은 1,587명이 이틀씩 입역하고 하루씩 입역한 자들까지 모두 합하여 하루 입역인으로 따지면 총 3,187명에 달하였다. 완성된 제언의 규모는 海堰의 길이가 190把, 넓이 190과, 물의 깊이는 1丈 정도였는데, 축조한 둑의 높이는 1~2丈, 넓이는 6~7丈으로 매우 완고한 형태였다. 수문은 석재로 만들고 사방을 조개 태운 蟹灰로 채워 바닷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였다. 제언을 쌓아 형성된 전답은 논 7~8석락지로 토질이 매우 좋아 모래나 돌 때문에 간척이 어려운 곳이 없을 정도였다.³⁹⁾

윤이후는 이 같은 역사 과정 및 결과에 매우 만족하여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7) 束金島는 해남군 산이면에 속한 섬으로 명칭은 목화를 생산하여 돈을 묶는다는 뜻이다. 1920년 금호도라 개칭하였으며, 영산강 하구 방과제 공사 결과 현재는 육지로 전환되었다.

38)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4년 3월 5일 계묘.

39)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4월 28일 을미.

역사를 시작한지 1개월이 못되어 완성할 수 있었으니 가히 速成했다 할만하다. 軍人들은 한명도 다친 이가 없고 凡需는 한 물건도 妨損됨이 없다.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 것이 마치 하늘이 도운 듯 하지만 내가 고생한 것도 많다. 어떤 사람들은 廣田한다고 비난하지만 근본에 힘쓰고 농사에 힘쓰는 원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의롭지 못한 이득에 힘쓰는 자들로 말하자면 어찌 같이 논할 수 있겠는가? 나의 자손들이 혹 오늘 나의 勤苦한 뜻을 알아주면 훗날 재물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또한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⁴⁰⁾

대공사를 하는 동안 부상자도 없고 물력도 순조로워 1개월 만에 速成한 데 대해 하늘이 도운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의 간척지 개발을 비판적으로 보는 세간의 이목을 언급하면서 농사를 근본으로 인식하고 이에 힘쓰는 자신은 불의한 利害에 매달리는 자들과 다르다고 분리하면서 자손들이 이러한 근면과 노력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같은 간척지 개발에 대한 인식과 경제관념은 해남윤씨의 적극적인 해언전 개발 및 도서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3) 교유와 유배인 방문

향촌 사회에서 교유 및 인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지인 방문이다. 특히 숙박이 동반된 지인 방문은 적극적인 교유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윤이후는 8년 동안 총 20회의 지인 방문 여행길에 올랐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20회의 여행 가운데 16회가 유배인 방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숙박이 수반된 지인 방문의 대부분이 유배인 방문임을 알 수 있다.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변 고을로 이를 포함한 인근 고을 및 섬들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유배지에 해당하였다. 이와 함께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으로 서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집권 세력이었던 남인계 인사들이 대거 유배길에 올랐고, 그들 중 일부는 해남 인근 고을이나 섬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고을에 있던 윤이후는 지리적

40)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4월 28일 을미.

특성으로 인하여 갑술환국의 여파를 몸으로 직접 체감해야 했다. 나아가 그의 정치적 성향이 남인계였던 관계로 이들 남인계 유배인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그들의 유배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지암일기』에 등장하는 유배인들은 이들 남인계 인물들이 대부분으로 10여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일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尹以冕이다. 그의 배소는 영암이었는데,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보낸 편지가 1694년 4월 3일 윤이후에게 전달되었다. 유배지에 도착하였음을 알리면서 그에게 의지해 배소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4월 14일에는 知義禁 鄭維岳(1632~?)이 유배지 진도로 들어가면서 연락을 해왔다. 그 때까지도 윤이후는 갑술환국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정유악을 통해 갑술환국과 남인계 인사들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이후 판의금 柳命賢(1643~1703)·柳命天(1633~1705) 형제, 영의정 權大運(1612~1699)과 참판 權珪(1648~1722) 부자, 좌의정 陸來善(1617~1704) 등 남인계 인사들의 유배 행렬이 줄줄이 이어졌다.

판서 유명현은 흑산도 유배길에 목포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4월 24일에 편지를 전하고, 흑산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우이도에 머물렀다.⁴¹⁾ 유명현의 형 유명천은 강진에 유배되어 4월 20일 전후로 적소에 도착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延日로 이배되어 떠났다.⁴²⁾ 영의정 권대운·권규 부자의 유배 행렬은 5월 14일 해남 별진역에 도착하였다. 아들인 참판 權珪 또한 강진에 정배되어 부친과 유배길을 동행하였다.⁴³⁾ 6월 10일에는 진도에 위리안치된 領府事 金德遠(1634~1704)의 유배 행차가 내려왔는데, 며칠 뒤 유배지가 제주도로 바뀌자 다시 진도

41) 우이도와 흑산도의 거리가 가깝고 흑산 別將이 우이도에 있었기 때문에 종전부터 흑산도 유배인은 모두 우이도에 머무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윤5월 25일 신묘).

42)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6월 15일 신해.

43) 권규의 배소는 처음에는 강진 貴羅里에 머물다가 5월 22일 江城 尹載道家로 옮겨 들어갔다(『지암일기』 권1, 1694년 5월 23일 경신). 또한 권중경은 조부의 유배생활을 모시기 위하여 1694년 가을에 內行을 거느리고 별진에 와서 우거하였다(『지암일기』 권2, 1695년 11월 21일 기묘 및 22일 경진).

에서 육지로 나와 해남 海倉에서 제주행 배에 올랐다.⁴⁴⁾ 7월 8일에는 좌의정 목내선의 유배행차가 금릉에 도착하였다. 목내선은 80세의 연로한 나이로 유배길에 올랐는데, 처음에는 경상도 연일로 유배지가 정해졌으나 가중되어 신지도로 移配되었다.

이렇듯 4~7월 사이에 10여명이 넘는 남인계 고관대신들의 유배행렬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윤이후는 그들이 유배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근처 유배객들이 闔閭(병사, 수사의 읍)의 보살핌에 의지해 調度가 부족한 걱정은 없지만, 장맛이 좋지 못하여 모두들 나에게 요청하여 이미 酬應한 곳이 6~7곳에 이른다. 오늘 또 신지도의 목상 및 고금도의 이감사에게 보냈다. 이 때문에 家用이 거의 바닥나게 생겼으니 우습다.⁴⁵⁾

유배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지방관이 보살폈지만 도성 생활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남지역의 대표적인 재력가였던 윤이후가 다방면으로 유배인들의 생활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생활비가 바닥날 지경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여러 유배인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을 느낄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로도 그는 이들 유배인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물품을 보내고 방문하는 등 교류와 지원 활동을 계속 유지하였다. 『해남윤씨문헌』에서 “갑술년 이후 남쪽 유배인이 십여 인이었는데, 공(윤이후)이 家力을 계산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어 예전의 혐의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⁴⁶⁾

이 같은 상황에서 지인 방문은 유배인 방문이 중심을 이루었고, 시기적으로도 유배인들이 내려오는 1694년 4월 이후부터 본격화하였다. 영암 서문 밖에서 유배 중이던 윤이형(윤강서)의 적소는 1694년 5월, 1695년 8월, 1696년 3월 등 매년 봄가을 여행이 확인되지만 팔마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당일 방문한

44)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6월 15일 신해.

45)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4년 7월 11일 정축.

46) 『海南尹氏文獻』 권15(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支庵公.

경우가 많았다. 권대운이 유배 중인 해남 별진과 권규의 유배지인 강진 江城 또한 팔마에서 가까운 곳으로 당일에 다녀오거나 아들을 보내 인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때문에 숙박이 동반된 여행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권대운은 1695년 봄에 해배되어 귀향하였다.⁴⁷⁾

한편 진도 남문 밖에서 유배살이를 한 鄭維岳(鄭尙書)은 1695년 9월, 1696년 4월 등 두 차례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고, 이현기가 유배 중인 고금도와 목래선이 유배 중인 신지도 또한 해마다 방문하였다.⁴⁸⁾ 특히 고금도와 신지도는 한 여행길에 동시에 방문하였다. 팔마에서 출발하여 項村을 거쳐 馬島鎭에서 배를 타고 고금도에 들어가 유배인과 하룻밤을 보낸 후 이튿날 새벽 고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신지도로 들어가 유배인을 만난 후 다시 고금도로 나와 하루밤을 묵고 마도진을 건너 집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⁴⁹⁾

윤이후의 유배지 방문 여행은 1695~1696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다. 1695년 가을에 고금도, 신지도, 진도, 영암, 강진 등 4차례의 유배지 방문 여행이 이루어졌고, 1696년에는 3월 봄에 장흥의 진사 이제역, 강진의 권규, 영암의 윤강서 유배지를 아우르는 3일의 여행과 4월에 고금도 이현기, 신지도 목내선, 영암 윤강서 배소를 아우르는 3일의 여행길에 연이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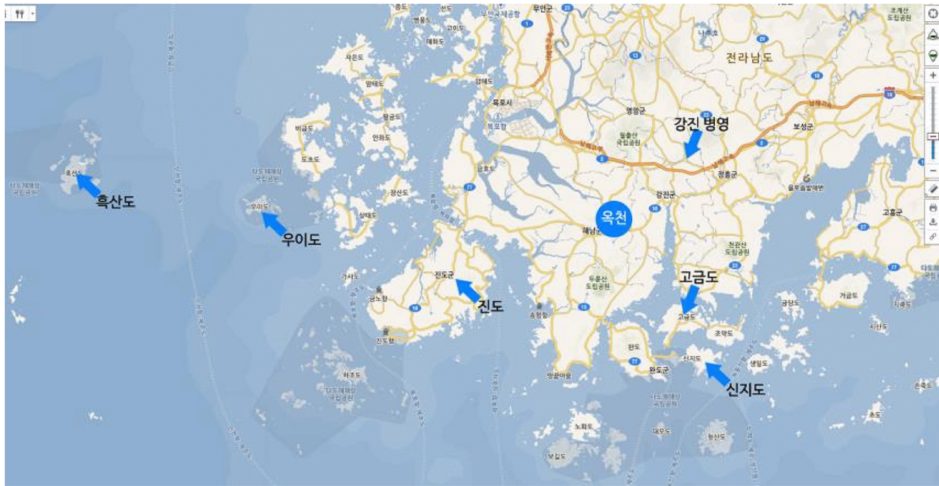
1698년에 이르면 유배인들에게 변화가 찾아와 유배지 방문 또한 변화를 맞게 된다. 5월에 정유악은 放歸하고, 권대운도 해배되었다. 목내선과 김덕원은 육지로 이배되어 목내선은 강진 월남, 김덕원은 해남 별진으로 옮겨왔다.⁵⁰⁾ 그 이후로 남아있는 유배인들은 대체로 인근 지역으로 적소가 전환되면서 당일 방문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47)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5년 5월 20일 기해.

48) 고금도에는 1695년 8월, 1696년 4월, 1698년 8월 등 세 차례, 신지도에는 1695년 8월, 1696년 4월 등 두 차례 다녀왔다. 목래선은 1697년 봄 신지도에서 강진으로 移配되어 月南으로 옮겨갔기 때문에(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7년 5월 19일 무술) 그 이후로는 강진으로 찾아갔다.

49)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5년 8월 19~22일 및 1696년 4월 5~7일.

50) 윤이후, 『지암일기』 권2, 1697년 5월 19일 무술 및 20일 기묘.



〈그림 4〉 윤이후의 유배지 방문

4) 휴양 및 유람

휴양·유람을 위한 여행은 전체 111건 가운데 28건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죽친 또는 지인들의 연회에 참석하고, 사찰이나 명승지를 찾아 유람하고, 혼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소일하기 위한 휴양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宴會, 遊賞, 휴양 여행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휴양·유람 여행 상황

번호	날짜	여정	여행지	내용
1	1692.5.8~10	3	영암 도갑사	나주목사가 영광, 무안과 초청
2	1692.5.11~12	2	해남 관음사	안형상과 上寺
3	1692.9.29~10.1	2	강진 만덕사	山房之約, 족회, 琴兒
4	1692.12.22~23	2	강진 만덕사	족숙 등 족회, 琴歌婢
5	1693.1.17~18	2	강진 만덕사	족회, 歌婢
6	1695.9.13~16	4	해남 백치, 죽도	위양택에서 연회, 俳婢, 죽도행
7	1695.9.28~30	3	영암 도갑사	영암 윤강서와 목은 약숙 곁행, 鳩林 영보 등 諸客 30여인 모임
8	1696.1.26~28	3	해남 대둔사, 죽도	2성생원, 俳婢
9	1696.2.16~24	9	해남 죽도	消遣
10	1696.4.14~16	3	해남 죽도	消遣
11	1696.7.20~22	3	해남 죽도	消遣

12	1696.8.2~3	2	해남 백치	중제 이대후와 천렵, 諸客 모임
13	1697.7.8~13	6	해남 죽도	消遣
14	1698.1.6~11	5	해남 죽도	消遣
15	1698.1.26~28	3	해남 대둔사, 죽도	安嫻蔡生이 원하여 함께 대둔사행. 한 천 문장이 琴兒 데리고 음.
16	1698.2.6~8	3	해남 백치, 죽도	위양 환갑잔치, 琴婢
17	1698.3.17~21	5	해남 죽도	消遣.
18	1698.4.6~12	7	해남 장춘동, 죽도	이침지가 會和山房 제안. 琴兒笛童 大同團樂
19	1698.6.3~7.4	31	해남 죽도	海水 목욕
20	1698.9.3~4	2	강진 합장암	遊賞. 죽숙 윤정미, 이홍임, 홍아. 貴出里 문장대
21	1698.9.17~18	2	강진 만덕사	평촌 문장과 乘舟打魚 약속
22	1698.10.6~7	2	강진 만덕사	琴笛儂婢. 대동 難得之事
23	1698.10.15~11.3	18	해남 죽도, 장춘사	지인 제객, 금적야비
24	1698.11.14~16	3	해남(?) 황어사	지인 제객, 금적야비
25	1699.7.9~16	8	해남 죽도	消遣
26	1699.7.27~윤7.8	10	해남 죽도	消遣
27	1699.윤7.19~20	2	강진 합장암	작년 유람 미진함을 털어냄. 문장대 笛童, 安携儂
28	1699.8.21~9.6	16	해남 죽도	消遣

시기적으로 볼 때, 귀향 첫해인 1692년에 4건으로 친척, 지인들과의 모임들이 빈번하였다. 특히 5월에는 나주 목사가 영광 군수, 무안 군수와 함께 그를 영암 도감사로 초청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유람하였다. 당시 영광군수는 오지 못하였지만 그는 나주 목사, 무안 군수와 함께 단란한 한 때를 보내고 돌아왔다.⁵¹⁾ 이 같이 귀향 직후 지방관들과의 유람은 그가 함평 현감에 있을 때에 인근 지역 지방관들과 교류하였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93~1695년의 휴양·유람 여행은 3년 동안 3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694년의 속금도 제언 축조, 1695년의 죽도 정사 건축 등 가사 및 경제 활동에 전념한 시기였기 때문에 유람, 휴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사 및 경제 활동이 일단락되는 1696년부

51) 윤이후, 『지암일기』 권1, 1692년 5월 9일.

터 휴양·유람 여행은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다만 1697년에는 아들 宗緒가 국청에 연루되어 옥사한 충격으로 한동안 칩거하면서 다소 위축되었다.⁵²⁾ 이를 제외하면 후반기의 휴양·유람은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또한 1694년 가을 정사를 건축한 이후에는 휴양을 위한 장소로 죽도를 자주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遊賞을 위한 여행지는 해남 관음사·대둔사(현 대흥사)·장춘사·황어사, 영암 도갑사, 강진 만덕사(현 백련사)·합장암 등 사찰이 주요 대상으로 나타난다. 산 속에 위치한 사찰은 대체로 빼어난 경관과 한적하고 고요한 자연 환경으로 성리학적 교양을 지닌 사대부 취향에 적합한 여행지였다. 뿐만 아니라 支應하는 승려들 및 숙박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지인들과 교류하고 연회를 즐기는 데 편리한 장소이다. 사찰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최적의 遊賞處이자 유람의 대상이었다. 윤이후 또한 봄, 가을 유람하기 좋은 계절에 친척 및 지인들과 해남, 강진, 영암 등 인근 지역 사찰을 찾아 단란한 한 때를 즐기는 등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698년 가을 죽인들과의 유람은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후속 모임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유람은 총 5차례에 달하였는데, 그 시발점은 강진 습掌庵 유람에서 비롯하였다. 합장암은 강진 도암면 석문산 자락에 위치한 백련사 암자이다. 합장암은 빼어난 경관이 호남 제일의 승경이라고 일기에서 극찬하였다.⁵⁴⁾ 그러나 바위산의 암석 사이라는 지형적 특성은 곡기를 끊은 도인이 아니라면 거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거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서 암자는 퇴락하였다.

그런데 전라도 관찰사 유득일이 “순행 행차 때에 합장암에 들러 보겠다.”고 한 말 한마디에 강진에서는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물력을 동원하면서 백성들에게 끼친 폐단이 심각하였다. 관찰사 또한 합장

52)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7년 4월 15일 갑자.

53) 1698년 겨울에는 죽도에 전염병이 돌아 그해 12월 초를 마지막으로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1699년 7월에 8개월 만에 방문하였다.

54)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9월 3일 갑술.

암 아래까지 왔다가 木棧에 겁을 내어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관찰사의 一覽을 위한 합장암 보수공사는 강진 수령이 문책당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끝내 관찰사는 찾지 않고 인근 지역 사대부들의 遊賞處가 되었다.

관찰사가 합장암 아래에서 돌아가버린 며칠 후 윤이후는 합장암 유람길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 구설수에 오른 합장암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9월 3일 아들 흥서를 데리고 강진 貴出里(귀라리, 현 도암면 계라리) 柵村(寒泉) 문장 집에 가서 족속 윤정미, 문장 사위 이홍임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암자를 관광하였다. 笛童琴兒를 대동하고 가서 암곡 사이에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에 취하여 出世之人의 흥취에 젖기도 하였다.⁵⁵⁾

이 합장암 유람은 이후 4차례의 유람이 윤이후 및 門長 父子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 첫 번째 후속 모임은 뱃길을 이용한 만덕사(백련사) 유람으로 문장 부자가 준비한 모임이었다. 9월 17일 맑은 날, 그는 아들 흥서 및 족인 尹儻과 평촌 문장 집으로 향하였다. 문장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비롯하여 문장, 족속 윤상미, 윤정미, 이홍임(문장의 사위), 윤척, 아들 흥서 등 7명이었다. 일행은 문장이 배를 준비해 둔 月津에 도착하여 남궁량, 윤이면, 윤행도, 윤점 등 기다리고 있던 4명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노비와 말을 육로로 먼저 만덕사로 보내고 배를 띄워 물결을 따라 흘러갔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떠오르자 평촌 문장이 笛童과 琴兒를 시켜 흥을 돋우고 제객들은 한껏 흥취에 젖었다. 鱸魚岩에 도착해서는 모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내려가 해변 암석에서 기대 앉아 잠시 상쾌함을 즐기고 다시 배에 올랐다.⁵⁶⁾ 경치에 취한 사이 어느덧 배가 만덕포 앞 언덕에 정박하자 먼저 보냈던 노비와 말이 대기하고 있었다. 배에서 내려 말을 타고 절에 들어가 板殿에서 짐을 풀었다. 하루를 흥껏 즐긴 윤이후는 일기에서 그날의 감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5)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9월 3일 갑술 및 4일 을해.

56) 농어바위는 강진 도암면 송학리의 농어바위로 추정된다. 강진에서 문화관광지로 개발한 '다산이 걸었던 길' 가운데 한 코스는 '굴동마을 앞 갈대밭 → 신부둑 → 농어바위 → 월고지 → 용산마을 → 궤바위암 → 녹우당(해남군) → 대둔사 → 북암 → 진불암 → 만일암 → 대둔산'으로, 농어바위가 포함되어 있다.

아! 내가 수년 이래 患難이 참혹하니 차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神魂을 모두 상실하여 다시는 세상에 나설 생각을 못해 한번 크게 입을 벌려 즐겁게 웃고 싶어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뜻밖에 정미씨의 좋은 수완에 내가 이처럼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門長은 77세에도 시력, 청력, 동작이 小壯과 다름없어 큰 잔에 첩첩 넘치게 술을 마셔도 행동이 흐트러짐이 없다. 실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니 오늘 정미씨의 즐겁고 두려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정미씨가 힘을 다해 모셔 더할 바가 없이 하니 이 또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정미씨에게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나같은 불초는 천지 사이에 나처럼 박복한 사람이 없으니 애통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⁵⁷⁾

당시 윤이후는 봉당정치의 대립 상황 속에서 뜻을 크게 펴지 못하고 낙향해 있고, 설상가상으로 아들 宗緒가 옥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아들의 죽음 이후로는 더욱 칩거하여 세상사는 즐거움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문장택의 배놀이는 그에게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 윤정미가 부친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더욱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

문장이 주최한 만덕사 배놀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윤이석, 문장, 윤상미, 윤정미(문장 아들), 이홍임(문장 사위), 윤척, 윤흥서, 남궁량, 윤이면, 윤행도, 윤점, 윤간, 윤희진 등 모두 13명에 달하는데, 성씨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해남윤씨 족친 모임이었다. 여행 규모는 이들 13명과 모임을 위해 동원된 笛童, 琴兒 및 奴馬 등까지 포함하면 수십 명에 달하는 대규모 여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모임은 20여일 후인 10월 6일의 만덕사 모임, 18일의 죽도 모임, 11월 14일 황어사 모임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이어졌다. 다음의 기록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10월 6일, 지난번 만덕사 모임에서 尹倜, 尹侃이 또 오늘 모임 것을 약속하였다. 오늘 아침 편지를 보내 초청하여 식후에 興兒, 智遠을 데리고 평촌 문장택에 나갔다. 화촌 안형상이 문장의 초청으로 이미 와있었다. 문장·安友와 함께 만덕사에 갔다. 숙부 윤정미 및 윤척, 윤간, 이홍임, 이웅, 윤희진이 뒤쫓아 문장택에 도착하였다.⁵⁸⁾

57)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9월 17일 무자.

58)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10월 6일 정미.

10월 18일. 이날 저녁에 화촌 안형상, 한천 문장 및 그의 아들 정미, 사위 이홍임, 보암 윤간이 왔다. 일찍이 만덕사 모임에서 오늘을 기약하였다.⁵⁹⁾

11월 14일. 지난번 죽도 모임에서 또 다음 약속일을 정하여 安友가 主辦하기로 하였다. 안우가 어제 사람을 보내 황어사에서 모임 것을 약속하였다. 절은 여기에서 20리 남짓 거리이다. 아침 식사 후에 출발하였다 (중략) 안우가 먼저 이르러 기다리고 있었다. 한천 문장 및 그의 둘째 아들, 이홍임, 윤척, 윤간, 남궁량, 배옥이⁶⁰⁾ 계속해서 도착했다 (중략) 그 나머지 김진일, 노유삼 등 4~5인이 歌謠雜戲로 안우의 부름을 받고 왔다.⁶¹⁾

이를 보면, 10월 6일의 만덕사 모임은 9월의 뱃놀이·만덕사 모임에서, 10월 18일의 죽도 모임은 그 직전의 만덕사 모임에서, 11월 14일 황어사 모임은 죽도 모임에서 미리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主辦人도 만덕사 모임은 윤척·윤간, 죽도 모임은 윤이후, 황어사 모임은 안형상이 담당하여 약속일 직전에 참석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모였다.⁶²⁾ 모임 때마다 다음 주관인을 정하고 주관인에 따라 모임 장소도 달라지고 있다. 주관인은 모임을 주관하여 장소뿐만 아니라 음식 등 모임을 위한 일체를 준비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임에는 흥을 돋우는 악공들이 빠지지 않았으니, 이들은 평촌 문장이 주로 담당하여 모임 때마다 笛童과 琴兒를 데려와 연주하게 하였고, 화촌 안형상 또한 儈婢를 대동하고 있다.

이같이 1698년 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며 계속되는 모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윤이후가 죽도 모임을 주관하고 남긴 기록이다.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죽당이다. 하물며 문장은 우리 문중에서 향렬이 가장 높고 연령도 높아서 오늘의 모임은 실로 叙族之意를 위한 것이다. <죽도> 湖山의 맑은 운치 또한 남쪽 지방의 빼어난 승경이니 우리들 이 모임은 가히 얻기 힘든 일이라 할 것이다. 즐거움을 탐닉하는 보통 모임과 어찌 비교하겠는가?⁶³⁾

59)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10월 18일 기미.

60) 大山 鄭寶城택의 외손으로 서울에서 내려와 泰仁 屬耳에 우거하고 있었다.

61)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11월 14일 갑신.

62) 윤이후는 자신이 주관하는 10월 18일 죽도 모임을 위하여 3일 전인 15일에 팔마에서 죽도로 들어가 손님맞이 준비를 하였다. 모임 당일에는 흥에 취해 “草堂清絶地에 群賢이 모드시니 蘭亭勝宴이 오늘과 엇더턴고 잔잡고 들드려 못노니 네야 알가호노라” 라고 短歌를 부르기도 하였다.

63) 윤이후, 『지암일기』 권3, 1698년 10월 18일 기미.

모임의 주체는 문장을 중심으로 한 족당 모임이며, 그 성격은 叙族 즉 족인들이 모여 서로 회포를 풀고 결속력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높이는 모임으로 단순히 모여 놀기위한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1698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일련의 모임은 윤이후가 은퇴기에 친족 간의 교유와 결속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맺음말

윤이후는 1692년 해남 玉泉 八嗎로 귀향하여 16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8년 가까이 향촌에서 생활하였다. 그 기간 동안 매일의 생활을 기록하여 『지암일기』 세 권을 남겼다. 일기를 보면 그는 연로한 사대부의 은퇴 생활에서 연상될 수 있는 정적인 삶이라 하기에는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그의 향촌 생활은 특히 여행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귀향 이후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111회의 여행길에 올랐고 전체 여행일은 755일에 달하였다. 해마다 14.8회의 여행을 떠나 100일 동안 여행길에 있었던 셈이다. 여행 목적은 의례·분산수호 및 가내사가 중심을 이루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지인 방문 및 휴양·유람 등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 활동과 여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모습을 보인다. 여행지는 해남, 강진, 영암 등 3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거리 여행이 대부분으로 해남윤씨의 생활 기반과 활동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

윤이후의 여행 가운데 가장 중심을 이루는 여행은 의례·분산수호 여행이다. 상제례 및 분산 수호 활동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삶에서 근간을 이루는 부분으로 윤이후의 여행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694년 宗兄 윤이석이 서울에서 사망하자 그는 상제례 및 擇山과 관련하여 1694년부터 1699년까지 5년 동안 11차례의 여행길에 올랐다. 이장처를 택산하기 위하여 地師와 함께 해남, 강진 일대의 산소 각처를 수년 동안 찾아다녔으나 결국 성사하지 못하였다.

가사 및 경제 활동 여행에서는 제언 및 간척지 개발이 주목된다. 지역적으로는 죽도와 속금도에 집중되고 시기적으로는 귀향 직후인 1692년에는 제언 보수 공사, 1695년 하반기에는 精舍 건축 공사로 죽도 왕래가 빈번하였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1694년에는 속금도의 제언 축조 공사에 전념하였다. 이 경우는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다른 여행과 달리 6일~20일의 중장기 여행의 특성을 보인다.

지인 방문 여행은 1694년 이후 본격화하면서 유배인 방문에 집중되었다. 여기에는 해남의 지리적 특성 및 해남윤씨의 정치적 성향이 투영되어 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 정권이 실각하면서 尹以兪(영암)를 비롯하여 知義禁 鄭維岳(진도), 판의금 柳命賢(흑산도)·柳命天(강진) 형제, 영의정 權大運(해남)·참판 權珪(강진) 부자, 領府事 金德遠(진도), 좌의정 睦來善(신지도) 등 남인계 인사들의 유배 행렬이 남쪽으로 줄줄이 이어졌다. 윤이후는 그들이 유배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물품을 보내고 방문하는 등 교류와 지원 활동을 계속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휴양·유람 여행은 宴會, 遊賞, 휴양 여행으로 1696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여행지는 해남 관음사·대둔사(현 대흥사)·장춘사·황어사, 영암 도갑사, 강진 만덕사(현 백련사)·합장암 등 사찰이 주요 대상이었다. 사찰은 빼어난 경관과 고요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支應하는 승려 및 숙박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선호하는 遊賞處이자 유람의 대상이었다. 윤이후는 봄가을 유람하기 좋은 계절에 친척 및 지인들과 해남, 강진, 영암 등 인근 지역 사찰을 찾아 단란한 한 때를 즐기는 등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죽인들과의 유람은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후속 모임으로 이어지면서 죽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점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주제어 : 향촌사대부, 여행, 해남윤씨, 윤이후, 지암일기, 유배인

투고일(2015. 8. 13), 심사시작일(2015. 8. 17), 심사완료일(2015. 9. 2)

〈Abstract〉

Life and travel of scholar-official in country society
during the late 17th century of Joseon Dynasty

Kim Kyeongsook *

This essay microscopically studies the country life of scholar-official in Joseon dynasty, based on the tour records in 『Jiam's Diary』 which Yun ihu wrote. He resigned from present governor of 'Hampyeong'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Yeongam' in 1692. He lived in the country for about 8 years till his death. In that period, he took a journey 111 times for 755 days. In other words, he went on a tour 14.8 times for 100 days every year.

While he took a journey mainly for Confucian rituals, preservation of tomb-mountain, and family matters such as economic activity, human network and recreation activities such as visiting acquaintances, leisure, and sight seeing were latterly activated. The active economic activity is especially noticeable, like a frequent journey to 'Juk Island' and 'Sokgum Island' for dam and reclamation project. The journey for visiting acquaintances is concentrated in visiting exiles. It is based o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Haenam and the political coloring of Haenam Yun family. For sight seeing and leisure, he mostly took a trip to temples around Haenam, Gangjin, and Yeongam, and it was usually accompanied by relatives, and followed by family gathering. Thus, the recreation trip performed a role of strengthening family bond.

What was stated above shows dynamic aspect,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still life that is associated with old-retired scholar-official. Therefore, this contributes a lot understanding the real life of scholar-official in Joseon Dynasty.

Key Words : scholar-official in country society, travel, Haenam Yun Family, Yun ihu, Jiam's Diary, exil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Chosun University.